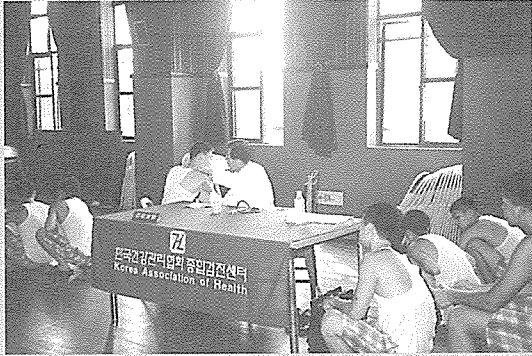


광주·전남지부, 광주 소년원생 무료 검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광주광역시 치과 의사회와 합동으로 보호 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법무부 산하 특수 교육기관인 '광주소년원'에서 보호 중인 비행 청소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소변, 간기능, 빈혈, 간염,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해 보호 소년들의 건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이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부산지부 등,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참여



부산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있었던 AIDS의 최신 동향 및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강연회와 가두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편 전북지부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AIDS 예방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건협 시·도 지부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개된 에이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국정 홍보처, 새천년 맞이 표어 선정·활용

국정홍보처는 새천년에 대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21세기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승화시키기 위해 대국민 현상 공모를 통해 '새천년 맞이 표어'를 선정해 지난 1월에 활용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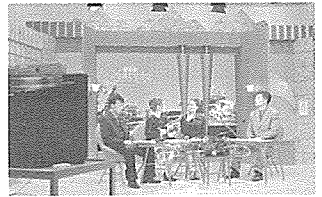
한편 표어 공모를 통해 최우수작에 선정된 문안은 '꿈을 이루는 세상-새천년 한국'이며, 우수작은 '5천년 동방의 빛 새천년 세계의 빛'과 '너, 나, 우리 새천년의 주인공입니다'가 선정되었다.

서울지부, 보건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가져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관내 보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지부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서구 보건소 등 24개 보건소의 보건소장과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협의', '암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울산지부, ubc '생방송 아침을 연다'에 출연

울산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울산방송국 「생방송 아침을 연다」에 출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부 김병희 관리의사가 출연하여 '일송달송 건강상식' 중 종합검진 및 선택검진 관련 사항에 관해 대담했다.

인천지부, 월-마트 코리아서 무료 검사



인천지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순회 이동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월-마트 코리아에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사와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지부는 이 기간 동안 흡연의 피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시민 308명에게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의 무료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지부, 노인 무료 검진 실시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양천 노인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노인 56명을 대상으로 혈압, 비만도, 혈당, 혈액형, 요화학 검사 등의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부, '간암' 공개강좌 실시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지부 보건교육관에서 시·도 일반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강좌와 강연회 등을 실시했다.

21일에는 조선대 의대 소화기 내과 김만우 교수를 초청하여 '간암의 치료와 예방'에 관해 광주 및 전라남도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했으며 토지공사 전남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선대 의대 소화기 내과 박유환 교수의 암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이란 제목으로 강연회 및 건강 상담도 이루어졌다.

한편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도 보건과 주관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 교육, 광산구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전남 학교 보건연구협의회 중등회, 한국 학교보건교육연구회 전남 지회 등을 대상으로 지부 편의 시설 제공과 보건교육관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 각 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극배우 최종원씨, 건협 방문



KBS 대하 사극 '왕과 비'의 한명회 역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극배우 최종원씨가 지난 1월 1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다. 평소 바쁜 일정으로 건강을 돌볼

틈이 없이 지내던 중 모 후배의 권유로 이날 협회를 방문해 검진을 받게 된 최씨는, 협회의 우수한 시설에 찬사를 보내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전북도 내 농업인, 각종 질환으로 고생

전북 지역 농업인의 상당수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과로에 의한 간장질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서 신속한 병원 치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농협 지역 본부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를 통해 실시한 농업인 무료 건강 검진 및 내원 검진 종합 결과에 따르면 총 1천 1백 61명의 검진자 중 49%인 5백 74명이 한 종류 이상의 검진 항목에서 유소견을 보였다.

특히 이들 유소견자들에게서는 1인당 평균 1.3건씩 총 7백 78건의 각종 질환이 발견되었다.

항목별로는 초음파 검사에서 검진자의 26%인 2백 99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이들의 80%인 2백 42명이 지방간 증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적인

음주 등이 주된 원인이어서 농업인들의 생활 여건 상 가장 유의해야 할 질병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간디스토마, 간낭종, 간석회화, 신장결석, 담낭결석, 췌장질환 등도 검진됐다.

혈액 검사에서는 전체의 14%가 빈혈, 13%가 고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심전도 검사, X선 검사에서도 10% 안팎이 협심증 등 각종 심장질환 및 폐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검진 결과는 건강에 대한 의식이 낮고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복합적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있어 단순한 검사보다는 종합검진을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농협은 지난 '86년부터 총 9억 3천여 만원을 들여 연 인원 8만 2천여 명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 도내 2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72